

문서번호	청계천관리처-1852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3.23.
공개여부	공개

★선임	팀장	청계천관리처장	문화체육본부장	
협 조	총무처장			
	홍보마케팅실장			

청계천 행운의 동전 모금액 기부행사 계획(안)

2018.

청계천 행운의 동전 모금액 기부행사 계획(안)

국내 특성화고 학생과 세계 물 부족 국가 어린이들이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행운의 동전 모금액을 기부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4. 3(화) 15:00~16:00
- 장 소 : 청계광장 팔석담(행운의 동전 던지기 장소)
- 참석자

공 단	서울장학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문화체육본부장, 청계천관리처장 외10명	사무국장 외 2명	사무총장 외 5명

*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식으로 사무국장이 참석

- 행사내용 : 행운의 동전 모금액 현판 전달, 동전던지기, 수거체험 등
- 기부금액 : 국내환 30,000천원(→서울장학재단)/외국환 25,000점(→유니세프)

□ 행사 세부내용 (약 1시간 소요)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행사시작 안내 및 사회자 내빈소개	사회자(운영팀장)
15:10	경과 보고	청계천관리처장
15:15	인사 말씀(행운의 동전 전달 취지 설명)	문화체육본부장
15:20	기부금 현판 전달(국내환 → 외국환 순서)	문화체육본부장
15:30	동전던지기 체험	본부장·외빈일행·직원
15:45	행운의 동전 수거 체험	본부장·외빈일행·직원
16:00	기념촬영, 행사종료	해산

□ 행정사항

- 국내환 지정기탁·계좌입금(서울장학재단), 외국환 실물(동전) 전달(유니세프)
-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 작성·배부(홍보마케팅실)
- 행사장 음향 장비 및 버스(15인승) 협조(총무처)

붙임 : 1. 현수막 및 현판 시안 각 1부
2. 보도자료(안) 1부. 끝.

[붙임자료]

- 현수막 시안



- 현판 시안



보도자료(안)

청계천 행운의 동전 ‘청계천 꿈 디딤 장학금’ 으로

-2017년 행운의 동전 모금액 국내주화 3천만원, 외국주화 2만5천점 전달
-서울시설공단, 3일 오후 3시 청계천 팔석담에서 ‘서울시민’ 이름으로 기부

청계천에 모인 행운의 동전이 서울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과 유니세프 성금으로 쓰이게 된다.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2017년 1년간 청계천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모아 3일 서울장학재단에 3천만원, 한국 유니세프에 외국환 2만5천점을 기부한다.

○ 서울시설공단은 3일 오후 3시에 청계천 팔석담에서 서울장학재단 및 한국유니세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행운의 동전은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팔석담에 행운을 빌며 동전을 던지기 시작하여 모이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여진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등에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기부되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

○ 지금까지 국내환은 347,257천원, 외국환은 317천점이 기부되었는데 외국환은 유니세프에, 국내환은 인도네시아 지진성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서울장학재단에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으로 기부되어 서울시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쓰여지고 있다.

- 시민의 소망이 담긴 동전은 수거·세척·건조·분류 등 직원의 노고가 더해지는 만큼 3일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공단·서울장학재단·한국유니세프 관계자들이 직접 동전을 던지고 수거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행운의 동전에 담긴 시민의 소망과 직원의 노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서울시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 해 동안 희망을 담아 던진 동전을 모은 기부금인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